

한국의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 의의와 전망

유영식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된 경제협력체로 평가받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 한국이 옵서버 국가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콜롬비아로부터 7월 15일자 외교공한을 통해 옵서버 국가로 가입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콜롬비아 비야 데 레이바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외교·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터키, 중국, 미국 등 4개국의 옵서버 국가 가입신청이 수락되었다. 이로써 태평양동맹의 옵서버 국가는 기존 16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과테말라,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라과이)과 신규 가입 4개국을 더하여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을 위해 지난 6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외교장관 회의에 윤병세 장관이 참석하여 태평양동맹 회원국 외교장관 및 각국 수석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의 옵서버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적



태평양동맹 로고

극적인 외교 교섭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 빠른 우리 정부의 대처에서 알 수 있듯이, 태평양동맹은 인구 2억1천500만 명, GDP 합계는 라틴아메리카 전체 35%인 약 1조 7천억 달러의 중요한 시장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써, 한국의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제 옵서버 국가로서 회원국 간의 사전 컨센서스에 의해 태평양동맹 정상회담 및 장관회담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태평양동맹의 진전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함께 태평양동맹에 옵서버로 신규 가입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7월 19일자 성명을 통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동맹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태평양동맹의 시장 통합 및 개방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칠레, 페루, 멕시코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진전시키는 등의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태평양동맹 관련 업무는 미국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옵서버 가입으로 향후 태평양동맹(PA)과 환태평양경



2013년 6월 30일 콜롬비아 비야 데 레이바(Villa de Leyva)에서 모인
태평양동맹국 외교·통상장관

제동반자협정(TPP) 간 연계협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3개국과 기 체결한 FTA를 십분 활용하고, 나아가 멕시코와의 FTA 교섭 재개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멕시코 정부가 제안한 FTA 체결 제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멕시코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한국 정부가 멕시코에 FTA 체결을 애원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파트리오타 브라질 외교장관은 지난 7월 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태평양동맹은 유사한 성격의 국가들을 규합하기 위한 통합프로젝트로 낮게 평가한 반면, 생명력이 충분하고 역동적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2019년까지 카리브공동체(CARICOM) 등과 같은 여타 경제블록에 버금가



2013년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

는 남미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5월 콜롬비아 칼리 개최 제7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6월 30일까지 △역내 상품교역의 90%까지 무관세 발효 △점진적 완전 자유화 도달 △금융, 통신, 항공, 해상운송 서비스 촉진 및 투자보장을 위한 협상을 완결하자고 합의한데 따른 태평양동맹 제18차 고위급회의(Grupo de Alto Nivel)와 제 12차 전문가그룹회의(Grupos Técnicos)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카르타헤나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태평양동맹 회원국 외교·통상차관들은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통상 기술 장벽 △서비스 △위생 및 동식물 검역 △투자 △조달 등과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태평양동맹 간의 교역 규모는 237.8억불에 달해 한-라틴 아메리카 총교역의 42%에 해당하며, 우리의 수출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39%인 144.5억불이며 수입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47%인 93.3억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의 투자도 29억불로써 대라틴아메리카 전체 투자의 28%에 달한다. 이렇듯 태평양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조

기에 옵서버 가입을 결정하고, 공식 가입이 된 것을 계기로 태평양동맹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에 옵서버로 적극 참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7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향후 태평양동맹 진전동향에 따라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 구축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태평양동맹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가장 역동적인 개방경제협력체로 급부상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는 있으나, 그간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나 경제블록도 우리 정부의 관심을 지금처럼 크고 빠르게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자세는 그 어느 과거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중장기적인 안목과 균형 감각을 살려 대라틴아메리카 외교를 추진해야하는 외교부로서는 태평양동맹에 속하지 않은 여타 국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대라틴아메리카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데 훨씬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영식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교양기초교육원 교수